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Plans Against D.P.R.K's
Asymmetrical Military Strategy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인주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Plans Against D.P.R.K's
Asymmetrical Military Strategy



2014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인주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Plans Against D.P.R.K's
Asymmetrical Military Strategy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인주영

인주영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인 주 영

북한은 냉전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군비경쟁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칭 전략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유도무기, 화생무기, 특수전 부대 확장, 사이버전 능력 확장 등을 통하여 평소 우리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반인류적인 비대칭 위협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비대칭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이 택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위협을 분석하여 그에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으로 장사정 포병과 특수전 부대 등이 있으며, 기타전력으로 예비전력과 사이버전 해커 부대 등이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전력은 그 기본적인 목표와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대내외적 상황변화를 맞아 대칭적 접근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대칭적 접근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위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평시에는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대칭적 전략을 활용하여 전면전 또는 국지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며, 아울러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부가적 목적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 전략이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대응방향은 첫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기습공격 징후 식별을 위한 ‘독자적 조기경보능력 구비’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여부를 예측함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기습공격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비 해야만 아 주요전력이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도발시에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조기경보능력 구비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주요 핵심 전력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구비’이다. 수도 서울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 위치하여 북한의 침투 시 우리가 대응력을 회복하기 전에 서울을 침략당하고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징후가 확실 할 때는 핵심 전력인 주요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위전략 발전과 전략무기 체계의 전력화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특수전 부대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전력 보강이다. 북한의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명의 특수전 부대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예비군과 배합되어 막강한 전투력과 정시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에 의한 기습 도발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기동화 된 신속대응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군사력 발전방향을 첨단화 대량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화 대량화된 무기는 북한의 전력보다 신속·정확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불필요한 대량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군을 두려워 하게 될 것이다.

필요시에는 공세적인 대응을 북한에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남도발을 함부로 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요어】 북한, 비대칭, 비대칭전략, 군사전략, 군사력, 북한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비대칭 군사전략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개념	4
1. 비대칭의 정의	4
2. 비대칭 군사전략의 개념 및 특성	5
제 2 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유형 및 사례	10
1. 비대칭전의 유형분류(Steven Metz의 관점)	10
2. 비대칭 전략의 유형 및 주요사례	12
제 3 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발전추세	15
제 3 장 북한 비대칭 군사위협의 실태 분석	16
제 1 절 대량살상무기	16
1. 핵무기	16
2. 미사일	18
3. 생·화학무기	21
제 2 절 재래식 전력 및 기타전력	22
1. 장사정포병	22
2. 특수전부대	24
3. 사이버부대	25

제 3 절 북한의 군사 정책과 전략	26
1. 정책 기초	26
2. 군사 전략	29
제 4 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추구배경	33
1. 정치적 요인	32
2. 경제적 요인	36
3. 군사적 요인	38
제 5 절 북한의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분석	40
1. 배합전략 수행양상	41
2. 기습전략 수행양상	41
3. 속전속결 전략 수행양상	43
4. 북한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에 따른 대비방향	44
제 4 장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46
제 1 절 군사적 대응방안	46
1. 방어체계 및 방위능력 확보	46
2. 공세적 방위전략에 의한 주도권 장악	49
3. 효과중심의 참수작전 구상	51
제 2 절 정책적 대응방안	52
1. 국지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구체화	52
2. 특수작전 중심의 전략표적 확보계획 발전	52
3. 전력증강계획 보완	53
제 5 장 결 론	55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표 목 차

<표 2-1> 비대칭 전략의 개념 정리	6
<표 2-2> 메츠의 비대칭 전략 유형 분류	11
<표 2-3> 비대칭전략의 유형 및 주요사례	12
<표 3-1> 핵 무기 파괴효과	17
<표 3-2>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및 제원	20
<표 3-3> 남·북한 포병전력 비교	24
<표 3-4>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28
<표 3-5>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30
<표 3-6>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40
<표 3-7> 배합전략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41
<표 3-8> 기습전략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42
<표 3-9> 속전속결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4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헌법보다 우선시 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북한은 단 한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으며, 6.25 전쟁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언젠가는 북한 주도하 우리 남한을 주체사상화 하여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하기위한 정책은 김일성 시대 4대 군사노선,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지금 현재 김정은의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향상 등이 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경제난과 재정난에 처하면서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군사강국을 이루었다고 선언했고,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핵심 군사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핵무기는 우리 남한의 군사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전력인 것이다. 또한 핵무기 이외에도 다양한 유도무기, 화생무기, 특수전부대 확장, 사이버전 능력 확장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군사적 위협들이 우리 안보의 위협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형태를 통칭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전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평

소부터 우리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각종 회담 등의 정책적인 입지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다.

손자병법에 知彼知己 白戰不殆 라고 하였다. 현재 육군 00부대에서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장병들 총 200명에게 설문을 통하여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와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00부대 장병들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설문결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인원은 4%(8명) 비대칭 전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인원이 85%(170명), 비대칭전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다. 라고 답변한 인원이 11%(22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인 국제사회 냉전종식에 따른 체제존립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남한의 첨단 과학장비에 대응하며, 군사적 우위권을 확보하기위한 대응책이며, 국제사회 외교정치에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등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인원은 2%(2명),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다 라고 답변한 인원은 69%(138명), 잘 모르며 특별히 관심없다. 라고 답변한 인원이 29%(58명) 이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결과 장병들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 전략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식 수준이 저조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장병들은 평소 일일정신교육 및 주간정신교육 등 정신교육을 통하여 지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00부대 장병들의 설문결과 보다 더욱 저조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의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의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을 분석하여 우리의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군사전력 과 관련된 자료는 보안상 확보하기 제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방백서등 기 공개된 자료와 간행물, 인터넷 기사 자료 등을 활용 하였으며, 기 발표된 각종논문자료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고, 비대칭 군사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비대칭 군사위협 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 안을 군사적인 대응방안과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제 5장에 결론을 맺었다.

한국군이나 학계에서는 아직 북한의 위협을 언급 할 때 비대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한국이 통상적으로 대비해온 재래식 위협의 다양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편하기 때문이다.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 력을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서의 우리에게 심각한 위 협이다."¹⁾ 라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적인 전력으로 수행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면 적도 기상천외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비대칭이라는 용어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대비태세를 강고하고자 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화생무기, 생물학 무기, 탄도미사일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 인 장사정포 및 특수전부대, 기타전력인 사이버 부대 등을 본 연구에 제시하 였고,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제와 우리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1) 국방부(2012), 『국방백서』, 서울 : 정책관리실, p.24.

제 2 장 비대칭 군사전략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개념

1. 비대칭(Asymmetry)의 정의

거울이 비치는 것과 같이 모양이 같은 것은 대칭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대칭이다. 즉,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Asymmetry, Dissymmetry 등으로 사용되며, 군사용어로는 비대칭위협, 이외에도 비대칭 작전, 비대칭 수단, 비대칭 전략,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쟁 등이 사용된다.

대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점·선·면 또는 이것들로 된 도형이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나 선, 또는 면을 중심으로 서로 맞서는 자리에 놓이는 경우"라고 되어있다. 즉, 어떠한 중심이 있으면 좌·우측이 동일하여 서로 포개면 동일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대칭이라는 것은 대칭과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전쟁에서 최초부터 총 화포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의 전투는 칼 활동을 이용한 싸움에서 화약이 개발되면서 총 화포 등을 이용하였을 때 비대칭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나라에서 총과 화포 등을 사용하면서 대칭전력이 되었다.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서는 비대칭 작전을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작전 즉, 기술적으로 한국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위주 작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열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위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또한 비대칭 수단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

2) 합동참모본부(201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서울 : 작전본부, p.200.

이 보유한 능력으로 화학무기, 장사정포, 전구탄도 미사일, 특작부대 및 전방전개 공군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Vision 2015 합동전장운용 개념서』에서는 비대칭적 대응을 "전략환경,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 전쟁수행방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 적의 취약한 부분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거나 능력을 과시하여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부동성과 우월성을 원칙으로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대칭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 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의 메츠(Steven Metz) 교수는 "비대칭은 국가안보 및 군사영역에서 주도권 또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은 극대화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와 다르게 행동, 조직, 사고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상대와 상이한 방법, 기술, 가치, 조직, 시간 또는 이 모든것의 결합이 망라된다."라고 주장하였다.³⁾

2. 비대칭 군사전략(Asymmetryic military Strategy)의 개념 및 특성

가. 비대칭 군사전략 개념

이상에서 살펴 본 다양한 비대칭 정의를 통해 비대칭 전략이 갖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다. 비대칭 전략은 통상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비록 상대가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의 우위를 상쇄하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적의 강점을 회피하여 무용화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적이 가진 "비대칭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의 약점을 겨냥한다. 적의 이러한 약점을 공격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세한 적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3)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SSI, 2001(www.carlisle.army.mil/ssi/pubs/2001/Asymmetry.htm)

이와 같이 볼 때 비대칭 전략이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약점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⁴⁾

비대칭전략의 개념에 대해 최선만은 표로 잘 정리하였다.

<표2-1> 비대칭 전략의 개념 정리

구 분	내 용
Bruce W. Bennet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격하거나, 적이 대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사용되어온 전략개념과는 다른개념이며 새로운 무기나 전혀 다른 무기를 사용한다. 또한 상대방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Metz와 Johnson II	군사문제와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비대칭은 자신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적의 약점을 확대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더 큰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기위해 적과 다르게 행동하고, 조직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권태영	전쟁에서 피·아간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아측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고 적에겐 최대한 불리하도록 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쟁수행 방식
미국군	비대칭적 접근이란 적이 미국과 다른 상당히 다른 작전방식을 사용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미국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기도로서 상대측의 주도권 행동의 자유 및 의지에 충격 또는 혼돈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주안을 둔다. 비대칭적 접근을 하려면 상대측의 취약점을 잘 평가해야 하고,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전술·무기·기술 등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공격하고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공격하는 방식의 군사적 대항이며, 화력운용을 단단한 덮개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점혈(급소)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략
한국군	비대칭 전략이란 전략 환경과 군사적 능력, 전쟁수행방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여 적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 출처 : 최선만(2006).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박창희(200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p.183.

나. 비대칭 군사전략 특성

비대칭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선 비대칭 전략은 상대방의 수단과 방법, 무기와 전략에 대해 상대성을 갖는다. 한 국가가 전혀 새로운 무기와 전략을 도입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그와 유사한 무기와 전략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면 비대칭이라 할 수 없다.

비대칭 전략은 시대에 따라 상대성을 갖는다. 비대칭 전략은 상대와 다른 무기와 전략을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재도입하여 만든 새로운 용어에 불과하다. 결국 특정상황에 부합된 독창적 무기 또는 혁신적 개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 하는 자에게 우세를 가져다 준다.

비대칭 전략은 특정무기체계의 사용 의지 측면에서 상대성을 갖는다. 가령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사용의지에 따라 대칭전략이 될 수도 있고 비대칭전략이 될 수도 있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경우 양국은 핵무기 전략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서로 사용의지를 낮추는 대칭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대 테러집단의 경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핵무기를 테러집단이 보유하게 된다면 현저한 비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비대칭 전략은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비대칭전략이라 하더라도 미리 그 수단과 방법이 노출되어 상대로 하여금 이에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면 이미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대칭은 그 용어 자체로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적의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거나 미러이미지⁶⁾가 작용하기 쉽다.⁷⁾ 이는 과거 가졌던 적의 이미지에 고착되도록 하여 적이 비대칭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간과하

5) 박창희, 전개논문. pp.100-101.

6) 미러이미지란 "오랜 기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의 국민들은 매우 유사하게도 상대에 대해 고정되고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된다." 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과거 상대에 대한 전통적 모습이 투영됨으로써 상대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7) 박창희, 상계논문. P.185.

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관료들로서 조직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쉬운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례를 바꾸지 못하고 주어진 행동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집단적 편견이 발생하여 적의 비대칭 위협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대칭 위협이 야기할 파급효과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게 된다.⁸⁾ 적의 비대칭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비대칭 전략의 특성뿐 아니라 관료조직의 속성상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비대칭 전략보다는 대칭전략을 선호할 수도 있다. 대칭전략은 이미 이전의 전쟁 교리 훈련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대칭전략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작전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가장 최근의 전쟁을 모델로 하여 그 교훈을 분석하고 향후 전쟁에 대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칭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비대칭 전략은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비대칭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혁신이 요구되는데, 대체로 혁신적 전략은 검증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중국혁명 전쟁시 마오쩌둥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적의 공격을 회피한 채 농촌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를 포위하려는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대도시를 탈취해야 한다는 볼셰비키의 혁명노선과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노설갈등은 1930년대 초반 5차에 걸친 국민당의 초공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은 1935년 1월 당의 공식노선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전략의 혁신과정에는 대장정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렵고도 커다란 희생이 따랐던 것이다.

비대칭 전략만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마오쩌둥이 유격전을 고집한 것은 홍군의 힘이 약했기 때문으로, 그는 언제든지 홍군의 힘이 강화된다면 정규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격전엔 한계가 있음을

8) Bruce W. Bennett(1999), "What are Asymmetry Strategies?", The Land National Defence Institute. P.9.

분명히 하였다. 사실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자탄의 위력 이었으며, 호치민이 남베트남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남쪽에서 활동하던 베트콩의 유격전술이 아닌 북베트남 정규군의 승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비대칭 전략은 적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노리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⁹⁾

비대칭 전략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황에 따라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첫번째 조건은 상대의 이익, 특히 강자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 해병 막사에 대한 폭탄테러나,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미군병사 시체에 대한 잔학행위 등은 해당지역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야기함으로써 비대칭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테러나 잔학행위가 미국여론에 미친 영향이 크게 작용한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군의 철수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미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행위자가 약자일 경우 의지와 전략만으로는 강한 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유리함에 틀림없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8년 프랑스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규모 재정과 탄약 및 무기지원, 그리고 병력을 지원받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에 의해 국민당이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었고 간접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시 북 베트남은 초기 프랑스 군에 일방적으로 밀렸으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중국의 전폭적인 군사지원에 힘입어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승리하고 1954년 휴전협정을 체결 할 수 있었다.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실패하고 철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9) Idid., p.7.

서구 국가들이 아프칸 전사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약자의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지원이 약자의 전쟁의지보다 승리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립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강자가 피개입국 국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전략을 추구할 경우, 약자는 비록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제 2 절 비대칭전의 유형 및 사례

1. 비대칭전의 유형분류 (Steven Metz의 관점)

비대칭 전략에서는 우세한 힘이 열세한 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념을 거부한다. 열세한 힘도 적의 허점, 틈새를 잘 이용하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자는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심리적 자만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비대칭적 묘수를 찾는데 태만하게 되며, 그 결과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약자는 강한 상대에게 지면 파멸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위기감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매우 비범한 비대칭적 묘수를 발견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총력을 다함으로써 성공의 기적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대칭전은 두뇌의 싸움이며, 고뇌의 결단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¹⁰⁾

비대칭전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의 메츠(Steven Metz)는 피·아 차이점의 대상분야를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분류는 전략교리, 기술, 의지, 사기, 조직, 인내심등 전력 구성 요소별로 분류한것이고, 두 번째 유형분류는 적극적/소극적 비대칭, 단기적/장기적 비대칭, 숙고형/우연형 비대칭, 저위험성/고위험성 비대칭, 분리형/통합형 비대칭, 물자적/심리적 비대칭 등 성격 또는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전략적,작전적,전술적 3개의 수준별로 분류한 것이다.

10) 권태영·노훈(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 경기도 : 법문사. p.262.

<표 2-2> 메츠의 비대칭 전략 유형 분류

비대칭의 분류	비대칭의 유형	비 고
비대칭의 수준	· 군사-전략적 비대칭 · 정치-전략적 비대칭	· 비대칭적 군사전략 추구 ·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적 수단 추구
비대칭의 차원	· 긍정적/부정적 비대칭 · 단기적/장기적 비대칭 · 저비용-고위협/ 저비용-저위협/ 고비용-비대칭 · 개별적/통합적 비대칭 · 물리적/심리적 비대칭	· 쌍방 간의 불균형적 관계 이용 · 비대칭 추구 기간에 따른 구분 · 사용수단의 비용과 위험도 · 대칭적 전력과의 연계여부 · 전력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
비대칭의 유형	· 방법의 비대칭 · 기술의 비대칭 · 의지의 비대칭 · 규범적 비대칭 · 조직의 비대칭 · 끈기의 비대칭	· 상이한 작전개념/전술사용 · 무기체계/군사기술의 차이 ·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 윤리도덕상의 차이 · 군사적 조직력의 차이 · 장기전에 대한 인내차이

* 출처 : 최선만(2006).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여기서는 이해 편의상 <표 2-2> 비대칭 전략의 유형 및 주요사례 와 같이 유형·무형의 전력요소별로 비대칭전의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사례를 제시하였다.¹¹⁾

11) 권태영·노훈(2008), 전계서, p.263.

2. 비대칭 전략의 유형 및 주요사례

<표2-3> 비대칭전략의 유형및 주요사례

유 형		주요사례
유형적 전략	질(質)과 양(量)	·고대스파르타군(질) : 그리스군(양) ·몽골의 기마군단(질) : 송나라 보병군대(양) ·냉전시 NATO군(질) : WARSAW군(양) ·걸프전시 미군(질) : 이라크군(양) * 정보시대 : 병력축소, 신속대응 첨단기술군창출(질)
	체계 및 기술	·15세기 영국보병의 ‘장궁’(프랑스 기사 무력화) ·15세기 이순신제독의 ‘거북선’(최초 철갑선) ·15세기 프랑스‘항해전함’ (최초의 대포장착 전함) ·19세기 영국의 ‘대전함’(DreadNaught)(거포장착전함) ·19-20세기 유럽의 Maxim소총(식민지 개척수단으로 활용) ·WW I 시 기관총 및 전차 ·WWII 시 독일의 U-boat/V-1 및 V-2, 영국의 radar, 일본의 어뢰, 미국의 항모전단 및 전략폭격,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냉전시 : 미·소 핵무기 및 대량보복/MAD 전략, 유도탄, 전자전장비 *정보시대 : C4ISR체계, 장사정 정밀 타격체계, 전자·정보 정보전체계를 이용한 전력체계의 혁명성 추구
무형적 전략	전략 및 전술교리	·테베(Thebe)Epaminondas의 ‘사선진법’(Leuctra)전투에서 2배의 sparta군 패퇴 ·카르타고 Hannival의 ‘양익포위 기동전’(Cannae 전투:로마군단 완패) ·스웨덴 Gustavus Adolpus의 ‘선형전술’ ·보아(남아프리카)의 ‘장기 지연 게릴라전’ ·WWII 시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전격전’ ·WWII 시 미국에 대한 일본의‘가미까제’ ·한국전시 미군에 대한 모택동의 ‘인해전술’ ·월남전시 미군에 대한 지압의 ‘hit&run’게릴라전 ·걸프전 및 이라크 전시 미군의 ‘정보전’ ·알카에다의 ‘테러전’(9.11 사태) ·정보시대 : 미군의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전, RDO/EBO, 스와밍 전술, 수직포위 강습 전술등 파격적 전법추구
조직편성		·고대마케도니아의 ‘phalanx’ 로마 군단‘Legion’ ·몽골의 기마군단 ·나폴레옹의‘시민군’편성 ·프러시아의‘일반참모제도’ ·WWII 구테리안의 ‘판저부대’ * 정보시대 : 네트워크 모듈형 조직(스트라이커 여단 / UA/UE부대),‘항공-우주원정군’등 추구

* 출처 : 권태영·노훈(2008), 전계서, pp.263-264.

첫째, 군사력의 질과 양의 비대칭 사례이다. 고대 스파르타는 장갑보병으로 그리스의 양적군대와 대적해서 승리했고, 몽골의 15만 기마군단은 남송의 100여만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냉전 시 중부유럽에서의 NATO군은 기술적 우위로 WARSAW군의 양적 우세를 극복,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 전에서의 다국적군/미군은 질적으로 절대 우위인 군사력으로 단기간내 승리했다.

둘째, 체계 및 기술에 의한 비대칭전 사례이다. 15세기 100년 전쟁 시 영국보병의‘장궁’은 프랑스의 석궁과 기사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영국군은 프랑스군보다 4배나 열세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19세기 해양전략시대에는 이순신 제독의 거북선(최초철갑선), 프랑스의‘항해전함’(최초의 대포장착전함), 영국의‘대전함’(거포장착 전함)등이 등장하여 그 위력을 십분 과시하였으며, 19-20세기 유럽의 Maxim소총은 식민지 개척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0세기 WW1시 기관총 및 전차의 출현, WW2시 독일의 U-boat/V1/V2, 영국의 radar,일본의 어뢰, 미국의 항모전단 및 전략 폭격, 그리고 미국의 워자 폭탄 생산 및 투하 등은 기술의 비대칭적인 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후, 냉전 시는 미·소의 핵무기 경쟁과 대량보복전략 / 상호확실 파괴전략, 그리고 우주무기의 등장과 별들의 전쟁 및 미사일 방어구상 등이 주목을 받았다.

셋째, 전략 및 전술교리측면에서의 비대칭전은 역사가 매우 오래다. 고대 그리스 테베(Thebe)의 Epaminondas는 Leuctrawjsxn에서‘사선진법’을 창안, 적용하여 약 2배나 되는 Sparta군을 패퇴시켰으며, 카르타고의 Hannibal은 Cannae전투에서 ‘양익포위 기동전’을 대담하게 수행하여 수적 절대 우세의 로마군단에 완승하였다. 그 후 스웨덴 Gustavus Adolpus의‘선형전술’보아(남아프리카)의 ‘장기 지연 게릴라전’프러시아 Ludendorf의 철도를 이용한 ‘대기동전’(러시아 제2군 패퇴), WWⅡ시 프랑스에 대한 독일 Guderian의 ‘전격전’ WWⅡ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가미가제’ 한국전시 미군에 대한 모택동의 ‘인해전술’ 월남전시 미군에 대한 지압의 ‘hit & run’ 게릴라전, 걸프전 및 이라크전시 미군의 ‘정보전’ 알카에다의 ‘테러전’ 등이 주요사례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

넷째, 조직/편성에 의한 비대칭전의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phalanx', 로마의 'Legion', 몽골의 기마군단, 나폴레옹의 시민군, 프러시아의 '일반참모제도' WWⅡ 시구데리안의 판저부대, WWⅡ 시 미공군의 공격편대군과 미해군 항모전단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다.

이들 비대칭전략의 사례는 지난 전사 상의 가장 성공적인 전쟁사례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비대칭 전략이 그 당시 상황에서 적과의 대칭성을 처음으로 파괴하는 창조적 역할을 하고, 그 창조성은 시간이 경과하면 상대편도 이에 모방적 적응을 함으로써 비대칭성이 상실되는 창조-파괴-재창조의 순환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WWⅡ 시 독일이 구데리안의 전격전을 최초로 적용했으나, 이전법은 얼마 안가서 연합군에게 전수되고, 그 후 냉전 시는 구소련군의 중심작전교리, 이스라엘의 6일전쟁에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신속결정작전 교리에 응용되었다. 이처럼 비대칭성은 시간 및 상황 적응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칭성 창출에는 현상타파적인 창조성과 구국적인 정열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성웅 이순신장군의 거북선과 학익진법은 세계 해전사에 찬연히 빛나는 대표적인 비대칭전략의 사례이다. 이순신장군이 승리한 여러해전 중 특히 '울돌목' 해전은 12척의 전함으로 왜군 200여척 대함대를 격파한 사상유례가 없는 기적을 창출한 것으로서, 적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고 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반전시킨 대표적인 비대칭전이라고 평가된다.

비대칭전략은 이분법으로 대칭전략과 완전히 분리해서 수행될 수 없다. 비대칭전략은 대칭전략과 효과적으로 상호 결합해야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묘수가 창출 될 수 있다. 상대측에게 표면상으로는 대칭전(정공법)을 수행할 것처럼 '기만'하면서 기습적으로 비대칭전(기공법)을 수행하여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WWⅡ 시독일군은 비장의 전격전(기공법)으로 서전에서 화려하게 성공했다. 만일 대칭적 정공법 부대가 프랑스군을 기만하는데 실패하였다면, 비대칭적 기공법 부대(판저부대)의 기습효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손자병법의 정(正)·기(寄)의 조화로운 상호결합은 현재는 물론 21세기 미래전쟁 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¹²⁾

12) 권태영·노훈(2008), 전게서, pp.262-267

제 3 절 비대칭 전략의 발전 추세

정보지식시대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비대칭적 접근은 ① 원거리 시속투사형의 첨단 정보 기술군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② C4IR체계 + 장사정 정밀타격체계 + 미사일 방호체계 + 전자·정보전 체계 등을 시스템차원에서 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③ 전법으로서는 네트워크 중심전, 동시병렬전, 효과중심작전, 스와밍(벌떼)전술, 수직포위강습전술 등을 개척하며, ④ 조직편성은 소규모 분산 네트워크형, 신속대기형, 모듈 편조형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비대칭전 사례의 4개 유형 분야와 연계, 좀 더 그 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군사력의 질과 양면에서는 양을 지양하고 질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질적 비대칭성으로 양적 비교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둘째, 질적 경쟁에 따라 기술의 비대칭적 차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C4ISR체계, 장사정 정밀타격체계, 전자·정보전체계를 이용한 소위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력체계가 혁명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사전략 및 전장운영면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작전(EBO), 비선형 분산작전, 참수작전, 수직포위 강습전술 등 새로운 파격적인 전법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넷째,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형 모듈조직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미 육군은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와 관련, 기존의 여단-사단-군단-군사령부체제를 여단급의 행동부대(UA)-사단과 군단의 중간급 x형 군단과 군사령부의 중간급 y형 운용부대 UEy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여단을 기본으로 한 모듈형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에대한 소위 ‘불안정의 호’(Arc of Instaility)에 속하는 국가/집단들의 비대칭적 접근은 ① C4ISR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정보·사이버전 ② WMD를 이용한 위협 ③ 전쟁의 장기 지구전 화 ④ 테러리즘 ⑤ 게릴라전, 도시전, 산악전, 기만전, 심리전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전략이다.¹³⁾

13) 권태영·노훈(2008), 전게서, pp..267-268

제 3 장 비대칭 군사위협 의 실태 분석

제 1 절 대량살상무기

1. 핵무기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북한이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채택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1960년대에는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1965년 영변에 설치된 핵물리학 연구소와 연구로를 활용하여 핵물리에 대한 훈련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핵물리학 분야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집중 연구하는 등 자체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 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에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고폭실험도 실시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하여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하여 약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4월 의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개발을 시사한 이후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개를 가동중 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이미 2~9개까지 핵무기 보유사실을 추정하고 있고, 북한의 핵보유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핵무기의 파괴력이 엄청 크다는 것이다. 단 한 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핵무기 폭발시 위력과 피해규모를 보면, 핵무기 1kt의 위력은 TNT 1000t의 위력과 같고, 핵무기 폭발시 피해효과는 <표3-1>와 같이 폭풍 50%, 열복사선 35%, 핵 방사선 14%, 전자기파 1%의 피해를 나타낸다.

<표 3-1>, 핵무기 파괴효과

폭풍 (50%)	열복사선 (35%)	핵방사선 (14%)	전자기파 (1%)
건물/구조물 파괴 신체 고막·내장과열	화재, 화상, 실명	감마선:인체세포파괴 전류방사선 오염광범위	통신장비 사용불가

핵무기에 의한 파괴는 폭발과 동시에 대부분 폭풍과 열복사선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것에 의해 사망하거나 파괴되게 된다. 또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등 후손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무서운 무기이다. 인류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 예는 두 번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이다. 태평양 전쟁시 일본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은 미국이 처음 개발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핵무기였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다. 특히 나가사키 원자 폭탄으로 무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나가사키의 인구는 24만 명이었는데 사망자는 73,884명, 부상자는 74,909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의 60%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원자폭탄 투하 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감안하면 남아있는 인원의 대부분이 원폭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실로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남아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반세기 이상 지났음에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모든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그 동안 핵 협상의 이유로 모든 회담 및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가장 확실한 협상카드가 핵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계속 개발할 것이다.

그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핵 억제 전략을 구상하였지만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 안보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중 가장 큰 위협은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76년 ~ 1981년에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역설계하여 개발하였다. 1984년 4월에 SCUD-B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1986년 5월에는 SCUD-C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작전 배치 하였으며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였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 노동미사일, SCUD미사일 등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KN-02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였고, 2009년 4월 5일에는 개량형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7월에는 노동미사일 SCUD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현재 북한은 SCUD-B, SCUD-C, 노동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200기의 노동미사일 등을 포함하여 총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사일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소련의 R-27 잠수함발사 미사일에 기초하여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상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배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 미사일 종합체'라고 명명한 미사일 부대였다. 북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 이외

에 방어용 요격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등장한 공격용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500km 인 SCUD-B,C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 인 노동미사일, 일명 '무수단' 으로 불리는 사거리 3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으로 추정된다. 일본 NHK 방송은 무수단이 대포동 미사일보다 고성능인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핵탄두 탑재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는<표 3-2> 북한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점점 더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사일 기술향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어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핵무기,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 사용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 미사일이 제 3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되어 해당지역 및 세계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나 화학탄을 탑재하여 미 증원군 차단용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내 반전 여론 확산과 함께 미증원군의 한반도 전쟁에 차질이 예상되며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나 화학탄을 탑재하여 한국의 후방지역 공격 시 그 피해는 예측이 힘들다.

<표3-2>,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및 제원

개발 경과

19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 획득(추정)
1976.~1981.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 4.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86. 5.	SCUD-C 미사일 시험발사
1988.	SCUD-B/C 작전 배치
1990. 5.	노동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91. 6.	SCUD-C 미사일 발사
1993. 5.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1998.	노동미사일 작전 배치
1998. 8.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 측 : 위성발사 주장)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및 노동미사일·SCUD 미사일 발사
2007.	무수단미사일 작전 배치
2009. 4.	장거리 미사일(개량형 대포동 2호) 발사(북한 측 : 위성발사 주장)
2009. 7.	노동미사일·SCUD 미사일 발사
2012. 4.	장거리 미사일(개량형 대포동 2호) 발사(북한 측 : 위성발사 주장)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 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신형 미사일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미 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추정)	미 상
비 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개발 중

* 출처 : 국방백서(2012), 서울 : 정책관리실, p.292

3. 생·화학무기

생·화학무기는 생산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형시설에서 비밀개발, 실험, 생산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고, 유사시 즉각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관련국의 효과적인 대북협상도 거의 부재한 상태에 있다.

국제적인 생물학무기 사용금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물학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귀순자 이응평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전 평시 어느 때 라도 생물학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은 문천에 있는 한천 생산공장에서 연간 1톤 정도의 세균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생물무기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종류는 탄저균으로 냄새가 없는데다 감염되면 독감증상을 동반하며, 증상은 치사율이 80%이상이며, 이틀 안에 50%가 사망한다. 탄저균 100kg을 인구밀집지역에 살포하면 3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¹⁴⁾

생물무기는 쉽게 식별이 안 되고 저렴하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북한에서는 좋은 비대칭 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용으로 사용시 사회 혼란을 이야기하여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제2기 2차 전선회의에서 '화학화선언'을 발표한 뒤부터 화학무기는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1960년 중반부터 화학작용제의 원료인 농약을 일본에서 수입하였으며, 1970년 초반에는 소련으로부터 화학전 훈련을 지원받고 화학작용제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았다. 1980년대 초반에는 유기염소와 인화살충제를 비롯한 대량의 농업용 화학물질을 1,440만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물질의 일부를 원료로 사용해 각종 화학작용제를 생산해 비축하였다.

북한군이 전쟁첫날 전방에 배치된 야포와 로켓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1/3은 화학탄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은 이를위해 화학탄을 주로 전방 군단에 배치해 놓은 상태다.

14) 최선만(2006), 전개논문, pp.114-115.

북한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작용제를 사용하여 화학전 대비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2년 2월부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 북한 전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화생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화학탄을 2톤의 화학무기로 서울의 인구밀집지역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약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화학작용제를 충전할 FROG 미사일 10여발이나 항공기에 장착 폭탄으로 공격할 경우 이같은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그 가운데 50%는 사망, 30%는 중상 20%는 경상을 입을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유사시 전쟁초기 3일동안 170mm 장사정포, 240mm 방사포, FROG-7로켓, 스커드 미사일 등으로 70톤의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

북한 항공기에 의한 살포와 특수전 부대요원에 의한 살포 위협도 우려된다. 북한의 화학무기와 방호 및 제독장비들은 주로 전방 군단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무기와 방호장비들은 1차적으로 후방에 위치한 물자사령부와 화학사령부 등의 전략저장소에 먼저 저장된 뒤 1,2,4,5군단 등 전방 군단의 현지 탄약고에 공급된다.

제 2 절 재래식 전력 및 기타전력

1. 장사정 포병

북한군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치중하면서도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 국회 국정감사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지대함 지대지 유도탄 성능개량과 장사정포 포탄 성능개량 및 소형 잠수함 건조등 핵심전력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병이 비대칭 위협이냐에 대해 논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장사정 포병이 우리 군사시설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때는 군사위협이지만 만약 인접한 서울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면 '야만성, 비겁성'의 측면에서 넓

15)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2012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p.111.

은 의미에서 비대칭 위협전력으로 볼 수 있다. 야포의 사거리 등을 고려할때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란 측면에서 위협 정도가 매우 크다.¹⁶⁾

<표3-3>, 남북한 포병전력 비교¹⁷⁾

구 분	남 한	북 한	비 고
야포	5,300여문	8,600여문	1:1.6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4,800여문	1:25.5
지대지 유도무기	30여기(발사대)	100여기(발사대)	3:3.1

위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간 포병 보유문수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중 가장 강력한 분야의 하나이며, 남북한 격차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포병이다. 북한의 야포는 76.2mm를 제외하고 8600여 문이 있다. 이중에서 4,200여문이 휴전선 일대로 전진 배치되어 있다.

지난 연평도 도발 시 사용된 122mm 방사포는 옛 소련의 다련장 로켓포인 BM-21을 개량한 것으로 포탄의 길이는 2.87m, 탄약 1발의 중량은 66.3kg 이고, 최대 사거리 20.4km에 달한다. 또한 12~22개의 발사관에서 길이 5m 가량의 로켓포탄을 35분간 22발 발사할 수 있는 240mm방사포와 170mm 자주포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위협요인이다. 북한이 전진 배치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약 700~1,000 여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5200 여문으로 알려졌다. 자주포는 분당 2발을,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각각 발 사 할 수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300여문이 동시에 저지를 받지 않고 발사한다면, 시간당 2만 5,000 여발의 포탄이 수도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170mm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군 야포 중 가장 긴 54km로 M-1978, M-1989 등 두 종류가 있다. 각각 T-54, T-62 전차 차체에 170mm 포를 얹어 사용한다. 240mm 방사포는 12연장인 M-1985, 1989, 22연장인 M-1991이 있으며, 최대사거리는 60km다. 따라서 개전초기 사거리 50km 이상의 장사정포를 남한 수도권에 집중 타격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물론이고 심리적 타격효과가

16) 백승주(2011), “남북한 비대칭전력 비교와 대응방향”, 『국방저널』, 1월호, p.26.

17) 국방부(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 정책관리실, p.26.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수단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2. 특수전 부대

북한군은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따라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창군초인 1948년부터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요원 양성기관으로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하여 초기에는 월북한 남한노동당원을 대상으로 장기 6개월, 단기 3개월간 정치공작과 유격전법을 교육시켜 인민유격대를 편성 남파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부대 및 제대별로 특성에 맞게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북한 특수전부대의 능력은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인민무력부 경찰국 소속으로 경찰목적으로 침투했다가 기관고장으로 좌초되었다. 총 25명중 11명이 자살하였고 12명은 사살, 1명은 행방불명되었고 1명은 생포되었다. 이들은 포위되자 11명이 자살하였다. 이는 철저한 정신무장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증거이며 생포된 이광수에 의하면 개인이 3~15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루 3시간 이상하며 사격은 3,000번 이상 시행한다고 했다. 1일 30분 단검 투척훈련과 25kg 군장을 메고 하룻밤에 40km, 주야 120km 를 주파하며 400m 강물을 30분에 횡단하고 400m의 높이에서 낙하하여 200m의 거리 지상표적을 명중시키는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은 경보병부대의 증편과 야간 산악행군 훈련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로 창설했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해 특수전 병력을 20만여 명으로 증강했다.

1969년 1월 군당 제4기 4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경보병은 원자탄보다 위력이 있다. 경보병 1명은 일반 전투병 10명과 맞먹는다."고 하여 김일성이 경보병 부대에 대한 애착이 어느정도 었는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선제기습에 의한 공격과 정규전과 비정규전 의배함으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고, 기갑과 기계화 부대와 현대적 무기 체계로 장비된 군사력에 의한 속전속결을 추구한다. 특히 속도를 보장하기위해 비정규전 부대에 의한 배후 교란 및 특공전에 중점을 둔 속공전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이들 특수부대의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적 및 작전적 배합부대로서 정규작전을 지원하는 배합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전략적 배합부대로 전쟁 개전초기 남한 후방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군기지를 파괴하거나 첩보수집, 주요기간 산업시설을 파괴 하는등 정규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평시 대남침투 및 공작활동으로 별도 임무를 부여받거나 훈련 목적상 남한지역에 침투하여 정찰, 정보수집 고정간첩 및 포섭의 임무를 수행한다.

넷째, 국제 테러활동 지원 및 주도를 하며 남한과 일본등지에서 테러활동을 수행한다.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한국군에 비해 약 4배이상 보유하여 전략적, 작전적, 배합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며, 이들 전력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의도만 있다면 엄청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특수부대를 평가함에 있어 병력이나 무기체계의 단순한 수치비교는 의미가 약하며 질적으로 간파할 수 없는 전력상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사이버 부대

북한은 산업화에는 남한에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겠다는 각오로 일찍부터 군사 사이버전 능력의 강화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광케이블을 깔아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각 부처와 기관들의 컴퓨터망 연결 작업을 확대하는 등 북한은 나름대로 정보화 노력에 주력해 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보화 노력의 결실로 현재 북한은 상당한 해킹능력과 바이러스 침투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해커조직은 노동당 중앙당 조사부 예하 35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 121소로서, 이중 121 소대원들이 최근에는 중국 심양의 한 거점에서 해킹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각 대원들의 해킹 담당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화함으로써 해킹 및 정보유출 능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지휘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 평양 115호연구소로, 해

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약 1,000명의 '기술정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연구소로 위장한 뒤 중국등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해커조직을 지휘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115호 연구소가 소속된 총참모부는 사이버전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자동화대학을 자체운영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인한 위협양상은 일단 한국의 국방인트라넷과 C4I망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 운용되고 있어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간은행과 정부부처는 물론 국방부, 육군본부,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등의 군사관련 기관 컴퓨터망에 침입해 중요자료를 훔쳐가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에는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 망에 침투하여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국민 불안의 심리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1. 정책 기초

북한의 군사 정책 기초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의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군사 자위 노선을 강조하였다.

18)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2014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p.132.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국방 자위 원칙의 명확한 실천 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군 무장화’, ‘전군 요새화’로 제시되는 4대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제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 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 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은 <표3-4>와 같다.

<표3-4>,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구분	내용	비고
1960년대	·경제 건설과 군사 건설의 병진 ·전당·전인민의 전쟁 동원태세 확립	·중·소 의존 정책에서 탈피 ·19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자립형 군사공업 기지 완성으로 신기원의 자위력 육성 ·정규·비정규,소부대·대부대 배합전술 위주 교리개발	·전쟁 독자 수행 능력 향상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건설
1980년대	·전투 동원 태세 완비 ·예비 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장	·기계화군단,지구사령부,민방위 부 설치 ·SCUD미사일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군민 일치 강화 ·전국가·전인민 방위체계 강화 ·전략무기 독자체계 구축 ·선군정치론 표방	·군사중시,군대원호 기풍진작 ·노동미사일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배치
2000년 이후	·국방공업의 선차적 역량 집중 ·‘선군사상’헌법추가 ·‘핵보유국’헌법 명문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3차례 핵실험(2006.10.9, 2009.5.25, 2013.2.12) ·대포동 2호 시험발사(2006)등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전제서 p.133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자위권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 ①군대 내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②전투·정치훈련 강화 ③군사기술의 수준향상 ④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

1990년 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 사상화 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 무력과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군사 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 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기동화부대로 하여금 고속으로 중심 깊숙이 돌진하여 미구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 고속 중심 공격 능력, 선제 기습 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 기계화 군단편성,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등 2~3개월의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 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 공세형 군사전략,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과시, 강대국에도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D)로서의 비대칭 억지전략을 병행하는 의도로 나타났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으로 인구 수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수십 배가 되는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 기도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갱도화되어 있어 우리 측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습 곳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지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표3-5>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구분	과업 내용
목적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소·미사일기지·비행장 등 주요 전략 시설 거점 무력화
저격여단	주 전선 돌파, 82mm 박격포 및 방사포로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 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저격여단	함선·레이더기지·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공기부양정 보유
공군저격여단	공군기지 장비·시설타격
항공육전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 차단, 거점 확보
군단정찰대대	밀로 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여단	핵심 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6개 중대 편성(120명) 60mm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전제서, p. 135.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 추구는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0년 하반기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통로’(땅굴) 작업을 명령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사례처럼 땅굴 침투 부대와 지하당 세력을 연계시켜서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한 지하시설물 8,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수입한 TBM 장비 300여대(한국은 20여 대 보유)가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 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 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 하고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배합전략이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 전략과 옛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주민 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상으로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나 현실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 지속 역량을 고려할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의 승패에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 전장 종합 환경, 병력의 교육 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 수준,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 우발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수중 전력, 상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교훈삼아 1990년대 이후부터 전방부대의 경보병화로 특수전 병력을 기존의 10만에서 20만으로 확충, 유사시 포병 및 미사일에 의한 선제 공격 후 전후방 특수전 부대 동시 투입으로 우리군의 전략 요충지에 대한 선제 타격 및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부대 창설 및 평시 대남 사이버 도발 등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화력·기술력 열세 만회를 위해 4세대 전쟁 방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¹⁹⁾

제 4 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추구배경

1. 정치적 요인

가. 냉전종식과 북한의 고립

1917년 지상에 처음 소련 공산정권이 출현한 이후 70여년 동안 20여개 국가로 늘어났던 공산주의는 1989년 12월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2~3년 사이에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들 내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의 멸망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중국등 3~4개 국가들만이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들도 국제 공사혁명노선을 포기하였고, 현재 지구상에는 북한만이 유일하게 공산독재체제의 고수를 유지하고 있다.

19)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전제서, pp.136-137.

공산의 몰락과 함께 동·서진영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상호 대립하던 자유·공산 두 진영의 국가들이 현재는 우호협력 내지는 동반자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단극체제로 경제력에 있어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함께 다극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이익을 우선하게 되고 민족주의를 새롭게 대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질서를 자국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위해 일방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으로 다스리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표현되는 국제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현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소련과 중국등 공산권 국가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지지 및 지원을 고후한 반면 한국에 대하여는 단절과 적대정책을 계속 했으나, 냉전종식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우호협력관계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고, 북한의 전쟁노선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산체제를 완전히 포기하든가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것은 북한에서의 공산독재 폐쇄체제의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공급원 상실과 소위 국제혁명력량의 결정적 약화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내외상황과 여건의 급변으로 공산화 통일은 고사하고 체제유지마저 극도로 위협받고 있음을 의식한 북한은 1992년 2월 생존을 위해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들이 올바르게 이행되었다면 한반도에서 공존공영관계를 통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이행이 공산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인식하고 1993년 핵 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과 이른바 '벼랑 끝 외교'라는 극처방을 택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오히려 전쟁재발 위험이 심각해질 만큼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북한의 체제위기 봉착

1990년대 북한은 진퇴양난의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존립조차 크게 위협이 되게 되었다.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권의 연쇄적인 붕괴로 인한 정권의 존립위기와 식량난, 에너지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동서독의 통일,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아울러 체제위기를 심화시켰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리더십의 불안정, 경제파탄으로 인한 아사자의 발생과 더불어 탈북자의 증가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외부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탈북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뇌물수수, 권력남용, 부정축제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단속을 위한 주민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²⁰⁾

또한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5월 28일 '노동당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정은을 지명했다는 내용의 외교전문을 전 세계 공관에 전달해 충성맹세를 받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체제보위기간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상학습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4월 13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건제과시에 후계체제에 대한 위협차단으로 보이며 2009년과 유사하다.

북한 정권은 체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기조성 전술을 사용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흔들리는 민심과 군심을 바로잡고 경쟁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 통일부 통일 교육원(2014), 전게서, p.169.

또한 북한이 강도 높게 대남 군사도발을 위협하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남 적대정책을 통해 체제결속을 다지면서 남한 내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 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군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선군정치’라는 구호를 내걸고 체제와 정권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게 되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워 대내외 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전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도金正은의 군사적 능력과시와 정치적 위상 확보 등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다. ‘선군정치’ 추구

선군정치는 군사조직이 통치·통솔에 보다 용이한 만큼 전시형 국가 관리체제에 필요한 통치이념으로 활용되었고,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로서 대내적으로는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기반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위 및 혁명무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군사는 국방,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문화등을 망라하는 국가 전 분야와 창조, 생산 제제 유지에 관리되는 최대의 국사 인 것이다.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불리는 북한군은 정권유지의 핵심수단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정권이 선군사상을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군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현재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또한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부핵심 실세의 당 서열이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등 군부를 전면에 포진하고 있다. 이처럼 군대를 우선시하는 통치전략은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통치기반을 무력으로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군 지도층은 곧 통치의 핵심이며, 정권의 정통성을 대변해주는 세력인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방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협상력은 구대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카드로 삼아 대외적 군사력의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하고, 대내적 핵보유국으로 선전하여 강성대국이 달성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체제결속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경제적 요인

가. 북한의 경제위기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여 경제회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식량난 등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력갱생과 인민생활제일주의 기치아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식량과 생필품 증산을 통한 주민들의 기초 생활 향상과 전력·석탄 생산 증대 등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¹⁾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 이래 성장의 한계상황 속에서 1990년 전후 공산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곧 바로 위기국면으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소련과 동구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 개방은 지금까지 공산권 무역체제가 가져다주는 유리한 수출입시장의 상실과 각종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데다가 1995년, 96년 두해에 걸쳐 발생한 대홍수와 1997년의 가뭄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어 북한은 역사상 최악의 식량난과 아사자의 발생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부터 1997년 12월까지 기간을 고난의 행군²²⁾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식량난이 극도에 달했던 이기간 동안 최고 3백 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는 파국적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현상으로 국가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

21)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2012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p.134

22) 1930년 후반 관동군의 토벌을 피해 험난한 자연조건 속에서 항일 전투행군을 벌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함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1995-97년 3년간을 고난의 행군기간 으로 정함.

운 상황에 있다.²³⁾

저생산성의 악순환, 극에 달한 물자부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음성적인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위조지폐 문제,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문제 등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경제력이 수십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 하에서 경제운영과 계획경제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지속적 군비증강의 여력이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가 약 40%로 하락하고, 생활수준이 수십년전 수준으로 급락한 경제를 가지고 과거와 같은 군비증강을 계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²⁴⁾

북한은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방 분야에 할당해 오고 있다. 과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공표하였은, 1972년 이후에는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은폐한 채 북한군의 경상유지 부분만 국방예산으로 공표하고 있다.

실질군사비는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nal Income)²⁵⁾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량살상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 남북한의 국력격차 심화

197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역전되게 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이제는 분야별로 수십 배 혹은 수백배의 격차가 나는 분야도 있게 되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의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하며 세계 11~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비해 북한은 국가 생존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군력'을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군사부문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선군정치'를 국정지도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유사시 군사력을 앞세워 남한과의 전쟁에서 우세를 도모하고 대외협상을 통해 경제회생을 꾀하는 방편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본다. 결국 경제사정 악화

23) 최선만(2006), 전계논문, pp.47-54.

24) 최선만(2006), 전계논문, pp.57-58.

25)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사용하고 있음.

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게 되자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비대칭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군사적 요인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폐퇴한 김일성은 1950년 별오리에서 초기 전쟁 패인분석회의를 가지고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고, 여기에 부등한 전술로 싸우는 비대칭 전략을 강조하였으며,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배합전술을 강조하였다.

북한군의 군사전략도 한반도 전장여건을 감안하여 미 증원군 도착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²⁶⁾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전²⁷⁾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북한은 당 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고수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1962년 채택한 '4대 군사노선'²⁸⁾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국가자원을 군사부문에 우선 배분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전략 목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세계적인 정치환경의 변화와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2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김정일의 위상을 염두해 둔 듯

26) 속전속결전략 : 우세한 전투력을 집중 고도의 속도로 중심궤에 기동하여 적 지상군 주력을 섬멸하고 전쟁의지를 조기에 말살시켜 우방지원 이전에 종결시킨다는 전략

27)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 : 주 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에서 비정규에 의한 또 다른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적의 동원을 방해하고 지원 및 증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전장화' 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작전

28) 4대군사노선 : 1962년 12월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가오하를 위하여 채택한 군사노선으로서 북한이 이 노선을 채택하게 된 요인으로는 당시 미국의 월남전 개입, 쿠바 미사일 배치에 대한 무력적인 시위 사회주의 분열 등과 같은 국제정치의 긴장고조와 5.16 군사혁명, 한 일 회담 진행 등의 정세변화를 들 수 있다. 이 노선은 아직까지도 북한의 기본군사노선으로 남아있다.

헌법에 국방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이어 1998년 개정헌법 제60조에는 4대 군사노선의 요건을 제시하는 순서가 변경되었는데 1992년 헌법에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의 순이었으나, 1998년 헌법에서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로 순서가 바뀌므로 전민 무장화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상비군사력의 지속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의 국가가, 사회적 성격을 병영국가로 변질시키는 일종의 독트린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1990년대 이르러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전체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구도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강화하고 전략무기의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재래식 군비투자는 어렵게 되고, 한국과의 재래식 전력 군비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특수전부대의 대량양성 등 비대칭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초기에는 항일유격전 경험을 바탕으로 속공기동 및 포위섬멸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군사전략을 모방하였으나, 1960년대 이르러 6.25 전쟁 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군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격전과 유생역량 말살, 정치사상의식 고취를 강조하고 있다.²⁹⁾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 무기, 핵 미사일개발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로서의 비대칭 억지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게서, p.99.

제 5 절 북한의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분석

김정일 집권 이후 군사력 변화는 한·미 연합군과의 군사력 격차라는 현실적인 능력을 감안하여 한반도에서 미래전에 대한 준비와 유사시 가장 빠른 시간 내 수도권을 점령하겠다는 전쟁수행 목표와 연계하여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표 3-6> 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군사전략 수행방법이 기존과 달리 수도권 점령이라는 제한된 목표하에 단기총력전과 비선형 작전 개념을 미래전 양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3-6>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변화 요인	전쟁목표	미래전인식	군사능력
	한반도석권 < 수도권점령	장기전 < 단기전 선형작전<비선형작전	재래식 < 비대칭 전력



군사전략	수행방법(수단)	
	기존	변화예상
배합전략	·특수전부대	·특수전부대 + 동조세력
기습전략	·화생무기, 미사일, 포병, 전방전개 공군, 특수전부대	·미사일, 포병, 전방전개 공군, + 기계화부대, 사이버전
속전속결전략	·기계화부대, 포병군단	·핵, 전략미사일, 화생무기

* 출처 : 박상유(2011), “북한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군사논평』 서울 : 국방부, p.117.

이러한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가 군사전략 개념인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양상과 위협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1. 배합전략 수행양상

배합전략의 주요 주체는 특수전부대를 통해 아 후방지역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추구하는 개념이었다. 특히 11(폭풍)군단을 비롯한 전략적 특수전부대는 수도권 및 제2작전사 지역에 투입하여 주요 군사시설 및 핵심 기반시설을 타격하고 증원전력의 전방전개를 제한하기 위한 병참선 차단임무, 모방테러 등 비선형, 비접촉 작전수행을 추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3-7> 배합전략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수행수단	주요공격대상
특수전 부대	·전략적 배합 : 수도권(야전군지역 포함) 및 수도권 이남지역 핵심시설 ·작전적 배합 : 야전군 책임지역 주요 군사시설, 전투부대 ·전술적 배합 : 군단 및 사단 책임지역 주요 구나시설, 전투부대
동조세력	·주요 도심내 테러전 모방공격\
	·인터넷 활용한 남남갈등, 반전시위 확산 등
	※4세대 전쟁 수행 주체로 정치지도자 심리(의지) 공격

그러나 수도권 점령후 정치적 협상이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특수전 부대 운용과 연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야전군지역에도 전략적 특수전부대의 위협이 증가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다.

특수전부대와 함께 배합전략 수행의 또 다른 주체는 북한 동조세력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한반도에서 4세대전쟁³⁰⁾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전시에 인터넷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반미, 염전사상,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고 남한 내 주요 도심에서 제한적인 테러전 모방공격을 통해 사회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함으로써 정치지도자의 심리를 공격할 것이다.

2. 기습전략 수행양상

북한이 기습전략을 수행할 위한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무기와 장사정포, 미사일, 특수전부대, 전방전개 공군 등의 비대칭전력을 평양·원산 이남에

30) 하광희(2010), 『21세기 제4세대 전쟁』, 서울 : KIDA,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사용, 적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공격, 굴복시키려는 전쟁으로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진배치하여,

정규전부대에 의한 전선돌파와 비정규전부대에 의한 배합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능력과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을 고려하여 공자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한전쟁 수준의 기습전략을 우선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8> 기습전략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수행수단	주요 공격대상
사이버전	·국가 기간망 : 전력, 통신, 급수, 지하철, 금융 등 ·민간 인터넷 망 : 네이버, 다음, 포털 등 ·지휘통제망 : ATCIS, 인트라넷 등 ·아 침단장비 : GPS교란
미사일	·SCUD : 전쟁지휘소, 항만, 비행장, 방공시설, 사회기반시설 ·KN-02기, FROG : 주요 전투부대 및 지휘소
장사정포병	·수도권 일대 주요부대 및 야전군 주요부대
기갑·기계화부대	·아 FEBA“A”돌파시 수도권 점령을 위해 집중투입
전방전개공군	·전쟁지휘소, 항만, 비행장, 방공시설, 사회기반시설
특수전부대	·전략적 배합부대 - 수도권(야전군지역 포함) 및 수도권 이남지역 핵심시설 ·작전·전술적 배합부대 - 야전군 책임지역 주요 군사시설 및 전투부대

* 출처 : 박상유(2011), “북한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군사논평』 서울 : 국방부, p.119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전력을 이용하여 공격개시일을 기점으로 핵심 국가 기간망과 민간 인터넷망을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을 극대화 하고 직접적인 공격이 제한되는 군 C4I망에 대해서는 군을 지원하는 민간시설의 내부동조자³¹⁾에 의해 정상적인 사용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사이버심리전을 병행하여 국내·외 여론을 선동하여 전쟁을 수행하는데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사일 전력 중 SCUD를 비롯한 전략미사일은 전쟁지휘소, 군 비행장 및 군항, 방공시설,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타격하고 FROG를 비롯한 KN-02 단거리 전술미사일은 전방추진 장사정포와 함께 사전 위치가 획득된

31) 군 지휘통제 및 정보망은 일부 민간 통신망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동조자에 의한 직접적인 바이러스 유포 및 서버조작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야전군 주요 전투부대 및 지휘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전력운용과 지휘통제를 제한할 것이다.

전방전개 공군은 초기 제공우세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군 비행장 및 항만을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우리군의 주요 대응전력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조성과 함께 전략적 특수전부대는 수도권 및 그 이남지역으로 투입하여 전선의 비대칭과 사회혼란을 극대화하여 염전사상을 확산시키고, 전략적 특수전 부대의 일부와 작전·전술적 특수전부대는 야전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초기 전투력 발휘를 제한시키고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중심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속전속결전략 수행양상

기존까지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기갑 및 기계화부대, 포병부대 등을 통해 신속한 전과확대로 전쟁의지를 조기에 약화시키고 한반도를 석권함으로써 미 증원전력 도착이전에 종전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9>속전속결전략 수행 수단 및 공격대상

수행수단	주요 공격대상
핵	·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우선활용 · 사용이 불가피할 시에는 수도권 공격예상 * 점진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전략미사일	· 전쟁초기 주요 전력인 비행장, 항만, 핵심 기반시설 · 전쟁간에는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 * 점진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화생무기	· 일부 직접적인 사용 외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앞으로 기동부대와 포병부대는 기습전략 개념의 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비대칭전력인 핵 및 화생무기, 전략미사일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도권을 조기에 점령한 후에는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정치적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략 미사일을 통해 점진적으로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정치적 협상체결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주요 전략무기의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에 따른 대비방향

북한은 앞으로도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라는 기치아래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 현대화를 통해 기본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연합군 대비 비대칭전력 증강과 집단군 전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전시에는 변화된 군사전략 수행방법으로 전 한반도 석권보다는 수도권 점령이라는 제한전쟁을, 평시에는 체제보장과 연계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필요시에는 계산된 도발을 감행하는데 적합한 군사력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변화된 위협을 기초로 우선적으로 초전 집중된 전력에 의한 기습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대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습공격 징후 식별을 위한 '독자적 조기경보능력 구비'이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한국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요청으로 연기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은 언젠가는 시행 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주요전력에 대해 24시간 위치과악과 추적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주로 인력을 전문화하여 운용하고, 첨단장비 등 시스템 보강을 통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가·군·경찰의 정보수집 기관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체계의 획기적인 보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여부를 예측함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기습공격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비해야만 주요전력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도발시에는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조기경보능력 구비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요 핵심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능력 구비' 이다.

이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한사항을 해결해야 하나, 기습적인 일격을 수용해야 하는 방위전략으로는 아무리 고도의 훈련된 부대와 첨단장비로 무장되어 있어도 대응력을 회복하기 이전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0km내에 위치한 수도 서울이 위협받을수 있다는 시간적 측면과 지형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징후가 확실시, 핵심전력인 핵 및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선제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위전략발전과 전략무기체계의 전력화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전부대 위협에 대비한 '신속 대응전력 보강' 이다.

북한의 도발 및 비대칭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이 도발방법 및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전·평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직접적인 도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습상륙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는데, 세계최대 규모인 20만여 명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에 의한 기습 도발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기동화된 신속대응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대응전력은 일반부대에 단순히 명령을 통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최고수준의 정예화로 무장된 별도의 대응전력으로서 전술체대로부터 국가차원의 체대별 운용목적에 부합된 규모와 편성으로 지역별 대비가 될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할것이다.

넷째, 'C4I 체계 안정성 확보'이다.

C4I체계는 지휘관이 작전을 지휘하고 제 전장기능과 작전요소를 통합하며 의사소통과 적시적인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우리 군은 대대급에서 최상위체대까지 첨단화된 C4I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칫 C4I체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오히려 실전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둔감해 질수 있는 약점도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C4I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시설이 적의 장사정포병 위협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사이버전에 의한 초전 피해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 C4I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C4I체계 사용이 제한되는 우발상황을 구분해서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제 1 절 군사적 대응방안

1. 방어체계 및 방호능력 확보

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화학·생물학탄 및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 투발수단으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사일의 개발과 확산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에의 관심을 증대시켜 왔으며, 정립되어 온 개념은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전략방위 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제한공격에 대한 지구 전역 보호,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성은 어떠한 사거리 또한 어떠한 속도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방어가 가능해야 하며, 추격확률이 충분히 높고, 언제, 어디서든 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경보를 전파하는 조기경보 체계의 확보, 미사일 공격의 속도, 방향, 고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보 분석체계, 미사일 공격의 속도, 방향, 고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보 분석체계, 미사일 공격이 양상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추격할 수 있는 페트리엇 등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확보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정권이 우리 군의 정밀타격을 거부하기 위해서 장사정포를 후사면에 이동 배치하고 갯도진지의 위장 및 스텔스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인 KN-01 / -02를 계속 개발·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사전문가들도 사거리 120km의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은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능력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속히 협의해야한다.

현재 미사일 사거리는 300km로 제한되어 있어 북한전역을 커버할 수 없는 사거리이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천km까지는 늘려야하 한다. 이것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라 생각한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에 두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보유한다면 자주 국방이 훨씬 굳건해질 것이다.

나. 화생방 방어 / 방호 능력 확보

북한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첫째로 화생방 무기의 생산, 연구, 비축시설을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거나, 둘째로 발사된 화생방 무기를 요격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여 무력화 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방어라고 할 수 있다.

화생방 무기 각종 시설에 대한 공격은 공중폭발, 미사일 공격, 다련장포나 야포에 의한 사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에 의한 파괴공작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화생방 무기의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경우로는 항공기에 의한 투발이나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대탄도탄 요격무기체계를 가동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만 야포, 다련장포 등을 이용한 화학탄의 사용을 중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요격을 통한 화학탄 공격의 무력화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사시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시설을 공격하여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표적을 계획하고 유사시 가장 신속하게 선제 타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다.

북한의 화생방 무기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생방전 방호 대책으로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첩경이다. 방호대책이 갖추어야할 기본요건으로 첫째는 화생방 무기 사용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기경보

체제의 구축이며, 둘째는 화생방으로부터 개인이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의 충분한 비축이다. 셋째는 오염 되었을 시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운용 능력의 확보, 그리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철저한 화생방전 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이다.

한편 군사보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개인방호체제의 완비가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화생방 방호 전문부대의 운용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민간인이 화생방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고 개인보호 장비를 완비하는 개별 화생방 보호대책, 화생방 신속 대응군과 같은 방호 전문부대의 운용, 화생방전에 대한 대응방법을 전파하는 국민계몽대책등이 있다.

다. 특수전 부대 방어대책

북한은 공격개시이전 또는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20만 여명의 대규모 특수작전부대를 지상·해상·공중·땅굴을 이용하여 침투시켜 전·후방 동시 전장화와 후방지역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우리의 전쟁 지속능력을 제한시키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정권이 새로운 비대칭전 방법으로서 서북도서 일대에서 공기부양정³²⁾을 이용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 시 한반도는 전·후방 이 따로 없는 전 지역이 전장화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후방 지역은 가용전투력에 비하여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군사작전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작전 부대는 소화기 위주의 장비 경량화로 화력의 열세와 전투력 제한으로 대규모 타격작전 및 장기전 수행이 곤란하므로 위치가 쉽게 노출되고 발견시 화력의 열세로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원점에서 적 발견 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전투원에게 야간감시·정찰·식별장비와 야간조준·정밀타격무기를 개발, 제공하여 주·야간 적극적인 감시타격작전을 시행해야 한다.

32) 공기부양정은 길이 38m, 폭 12m, 무게 170여톤 규모로서 시속 90km로 갯벌, 육지 위를 약간 떠서 고속주행 할 수 있다. 선수와 선미쪽에 57mm 기관포 1문, 30mm 기관포 1문이 각각 장착돼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이용한 입체적 감시로 전장을 지배하고, 민·관·군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면 후방지역에서 이들을 격멸하는데 커타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관·군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AN-2기, 공기부양정, 땅굴 등 특수부대의 침투수단을 선제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도 북한 특수전부대처럼자체 특수부대 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2. 공세적 방위전략에 의한 주도권 장악

공세적 방위전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초전에 기습의 효과를 거부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기습 전략은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경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비록 북한의 기습을 받는다하여도 기습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곧바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세작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어위주의 수세적 전략개념을 공세적 개념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한국의 국민과 사회에 대한 테러 행위로 단정하고 선제공격을 포함한 과감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은 정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무작위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을 중시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테러와 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공세적 방위전략을 실제로이행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 능력, 정밀타격 능력, 신속 기동능력과 합동 통합작전이 요구된다. 즉, 군사력 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공세적 방위전략의 핵심은 표적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능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을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집자산과 이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파괴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래식 군사도발 위협에 엄중히 경고하고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산업화 시대 전력에 대한 우리의 비대칭전의 핵심은 첨단 전력을 이용한 새로운 전쟁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개념은 걸프전의 공지기동작전에서부터 이라크전의 신속 결정적 작전, 네트워크 중심전, 그리고 효과 중심작전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한국은 북한의 능력을 고려할 때 첨단 정보 기술전력을 이용한 최고의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나리도 걸프전에서 발전된 공지기동 작전도 매우 효과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첨단전력을 이용한 전쟁방법은 북한의 병력위주 막대한 전력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제3차 및 제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전쟁방식이나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전쟁방식도 비록 네트워크 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새로운 작전개념을 도입하여 혁명적인 전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현대전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쪽이 먼저 보고, 결심해서 화력을 집중하여 타격하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은 단시간 내에 대량살상이 가능하여 그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 방어하고 그로부터 방호되지 못하면 대단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장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전에 있어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C4I³³⁾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국가차원의 전략 C4I 체계, 통합군 사령부와 주요 작전사령부 차원의 전구 C4I 체계, 그리고 군단 급 이하의 제대에서는 전술 C4I 체계로 구분하여 실시간 지휘, 통제, 통신, 정보가 컴퓨터와 연동되어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무기를 선택하여 결심하고 공격하며 차후 작전까지 단기간 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국력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인적자원과 경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과학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33)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and Intelligence System)

: C4체계와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통합시켜 자동화된 정보 또는 정보체계를 운용하여 지휘관이 임무달성을 위하여 부대를 계획하고,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의 C4I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전략간의 가장 핵심적인 비대칭은 NCW 대 WMD이고, 그 중심에는 기술개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3. 효과중심의 참수작전 구상

효과중심의 참수작전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행하였던 작전의 형태로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적 지휘부 및 주요 전략표적을 공격하여 제거함으로써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작전개념이다.

한국은 장차 정보감시능력과 정밀유도무기 전력을 확보하여 적의 지휘부와 주요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특히, 효과중심의 참수작전은 전장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전쟁에 대한 억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중심 참수작전은 다음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첫째,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정권의 지도부와 국민들을 분리하여 지도부에 대한 정밀공격을 실시하여 이들의 지휘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도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라크전의 사례를 보면 만약 지휘부의 통제가 무력화될 경우 실제로 야전부대의 전투의지는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같은 민족과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야전부대의 지휘부대 및 지휘통신체제에 대한 작전이다. 이는 실제로 야전부대들의 작전능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반도 전구가 산악지역이며, 북한이 위성 등 첨단 통신체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휘통신체계를 차단하고 무력화 시키는 것은 보다 쉬울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코소보전에서 흑연탄을 사용하여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세르비아 정권을 압박한 적이 있다. 한국은 신종무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밀타격수단으로 북한의 야전부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참수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제 2 절 군사적 대응방안

1. 국지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구체화

북한의 국지도발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분쟁지역에 대한 전략 증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북한은 대내적 정치문제나 남북 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방한계선 등에 대한 국지도발을 수시로 자행할 수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 시에는 교전규칙과 예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지도발은 분쟁의 수준을 군사문제로 낮은 수준에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하나의 카드로서 항상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국지분쟁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북한이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사력 시위를 통해 북한이 국지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1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지분쟁의 도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대내외 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국지도발이 어떠한 대응을 야기할 것인가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정세관련 전 국방부 장관이 도발원점에 대하여 정밀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공군의 F-15가 정밀타격 능력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현무2, 현무3의 타격능력 공개는 대응을 매우 잘 한 것이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도발에 또 다시 해안포 도발을 감행했을 때에는 맞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북한의 해안포 부대와 동굴 속에 있는 방사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적이 한 발 사격시 2~3배 이상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의 양을 확보하고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을 내놓고, 병커버스터, 스파이크 미사일등을 도입 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강력히 억제할 수 있다.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채찍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이 제공하는 협력 및 지원 사업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즉, 국지도발은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비대칭적인 전략은 한국의 협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 특수작전 중심의 전략표적 확보계획 발전

특수작전은 북한의 WMD 전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 지역을 조기에 점령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현대전에 있어 특수작전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쟁의 여건을 조성하며, 지도부 등 위치를 파악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며, 교란작전을 수행하고, 정밀타격을 위한 표적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정밀유도무기의 발전과 지휘통신체계의 발전 등은 비록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지에 전개하여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후방과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분쟁이 발발할 경우 WMD에 의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네트워크중심전 등에 의해 이들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수작전에 의해 표적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WMD는 전력의 특성상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공격은 자칫 심각한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작전에 의한 작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걸프전 등에서 이동용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하여 주요 표적을 특수부대를 통해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도 분쟁과 위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표적들에 대한 특수작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첩보의성과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 한국군의 전술정찰기 등 연합정보 수집 장비를 통해 전략표적을 확인하고, 타격계획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3. 전력증강계획 보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혼신을 다해 추진해야할 사업은 북한 핵에 대응하여 강력한 억지력과 전쟁 발발 시 최대한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채택이며,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의 효과적인 보완의 추진이다. 또한 군의 단기·중기 전략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토 철통방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도전의 조기 무력화 및 전면전 억지노력이 되어야 한다.

북한 핵의 당사국은 우리다. 전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전력을 지원받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며, 보다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북한 정치지도부의 도발의지와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최대한 신속히 마비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전쟁대비라는 것은 기본성격상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차원이므로 적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확실시되고 상당량의 화생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지식 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를 확충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체계를 다음과 같은 발전시킬 것이다.

첫째, 적 위협 우선순위를 재판단하여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전면전 대비전력, 잠재적 위협대비 전력 순으로 구조를 발전시킨다.

둘째, 한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킨다. 적지중심 감시장비인 글로벌 호크, 다목적 위성, UAV,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초계기 등의 조기경보 및 실시간 전장감시와 JDAMS 등의 타격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셋째,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토록지휘통제 통신체계와 전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중심전(NCW)³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해·공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체 방호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중기 전력보강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3개의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³⁴⁾, K-2전차, 차기상륙함, F-15(2차사업) 등 18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대 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고속상륙정(2차사업), 보라매 사업 등 110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및 비대칭 군사력을 비교하여 그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우리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더 이상 기동부대 위주의 단계적인 투입을 통해 부산까지 점령하여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우선 점령한 후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방법 또한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 논리적 근거를 미래전 양상 인식과 한·미 연합 방위력에 대비한 "재래식 무기의 선별적 현대화,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증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평시에는 정권유지라는 정치적 목적하에 계산된 위협과 도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전면전쟁이 불가피한 사향으로 급변할때는 초전 압도적인 역량투입과 기습의 이점을 극대화 함으로써 선수도권 조기점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군사전략 수행방법적인 측면의 변화와도 연계성이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변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습에 대한초

34) NCW(Network Centric Warfare) : 정보공유, 지휘 속도 향상, 신속한 작전전개, 고도의 공격치명성, 생존능력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센서·지휘통제·타격수단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우위의 달성으로 전투력 증대를 추구하는 전쟁양상

35) 국방부(2010), 『국방백서 2010』, 서울 : 정책관리실, pp.116~117.

기 공격을 저지,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대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 위협의 핵심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 재래식전력인 장사정포 / 특수전부대 - 사이버전 해커부대 이다. 북한은 핵개발 의혹을 넘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핵무기 뿐만아니라 미사일 600-700기, 화학무기 2,000-5,000톤 생물무기 상당량의 대량살상무기 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북한은 미국의 CIA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버전 능력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도 북한보다 열세인데³⁶⁾여기에 북한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전 능력까지 계산하게 되면 군사력 균형은 비교차원을 훨씬 뛰어넘게 되고, 사실 이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억제 비책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던 방법인 정치·외교·경제적 대응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방법으로 북한의 시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첨단무기 및 국방비 차원의 능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위기 발생시 다양한 상황을 독자적 능력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되며 따라서 내부적 차원에서 위기관리체계구축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평시부터 공고히 해야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는 외교 및 동맹 역량을 이용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제반위협과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군의 방안은

첫째, 한미동맹의 공고한 동맹체제 유지이다. 북한이 핵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우리도 핵을 갖을 수는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역할이 크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여 정보감시 정밀 타격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36)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전투력지수로 환산하여 비교할 경우 지상군은 북한 대비 80%수준, 해군은 95%수준, 공군은 105%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전체적으로는 약 85%수준인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확보 하여야 한다. 적의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초전박살을 내야한다.

둘째, 화생방 작전체제의 재확립 이다. 북한은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군사적 대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 화생방 경보체계 및 방호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며, 화생방전하 상황하의 전쟁 대비계획이 수립되고, 교육 /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독면과 보호의 등은 활동이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복장을 착용한 후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므로 전투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첨단기술을 포함하여 기능개선이 필요한 때 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방어위주의 개념에서 공세적 개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북한의 비대칭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후 식별 시 선제타격 개념으로 이를 무력화 할 수밖에 없다. 도발징후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배합전을 통해 후방 교란작전을 시도하므로, 우리군은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후방지역의 작전체제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국방개혁에 의해 예비군의 정원을 감축 하고 있는데, 지상군을 포함한 예비군의 감축에 대하여 Bennet 박사는 “지상군 및 예비군의 감축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우리군은 예비군의 정예화와 어느정도 수준 규모의 인원은 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해커부대에 대하여 우리군의 정보보호 강화와 사이버전 능력을 확장 /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첨단무기들이 북한의 사이버 전에 의하여 무력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해킹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

북한은 체제유지의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와 연계된 군사적 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나, 언제,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변화를 인식해 보고, 위협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함과 동시에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초전 승리로 이 끌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국방부(2006), 『국방개혁 2020』, 서울 : 정책관리실.
- 국방부(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 정책관리실.
- 국방부(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 정책관리실.
- 권태영·노훈(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 경기도 : 법문사.
- 박휘락(2009), 『자주국방의 조건』, 서울 : 아트미디어.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2012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2014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 합동참모본부(2008), 『북한군 군사위협 분석』, 서울 : 국방정보본부.
- 합동참모본부(2008), 『북한의 군사위협 분석』, 서울 : 국방정보본부.
- 합동참모본부(201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서울 : 국방정보본부.

[논문]

- 권태영(2011),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 『군사논단』
- 권태영·박창권(2006),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 개념과 접근 방책”
서울 : 한국전략무제연구소.
- 김강녕(2011), “비대칭전의 rosa과 주요 사례 분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 김성걸(2009), “북 미사일 개발의 최근추세”『동북아 안보정세분석』
- 김석호(2010), “북한의 비대칭 군군사위협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논문
- 김용호(2007),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연구”, 대진대 석사논문

- 김진동(2011), “남북한 비대칭 전력에 관한 비교분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논문
- 박이창(2007),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연구논문
- 박창권(2008),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 비대칭 전략이론의
관점에서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 박창희(200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 24권
- 박휘락(2013),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학술논문
- 박상유(2011), “북한 군사전략 수행방법 변화”, 육군대학 전술학처,
『군사논단』
- 백승주(2011). “남북한 비대칭저력 비교와 대응방향” 『국방저널』, 1월호
- 이병연(2010), “북한의 비대칭 전략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
정치대학원, 석사논문
- 정영태(2009),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배경과 우리의 대응”, 북한연구소,
학술논문
- 최선만(2006),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경기대 정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James H. Hugh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Military
Space Program.
- Bruce W. Bennett. "What are Asymmetry Strategies?", The Land
National Defence Institute, 1998.
-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arameters. Winter 2006.
-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SSI, 2001.
-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27, no.4,
Winter 2002.
- Ivan Arrehuin Totf,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April 6. 2010.

ABSTRACT

The Study on Counter-Plans Against D.P.R.K's Asymmetrical Military Strategy

In, Ju-Young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rth Korea had to face the fall of communism and the radical change of the world. The gap of national power and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reated a limit to the arms race.

That's why North Korea has adopted a breakthrough 'asymmetrical strategy'. They began threatening our national security with weapons that the R.O.K. doesn't possess, such as guided weapons, biochemical weapons, special forces, cyber-terror, etc.

Using unexpected means, they are trying to get superior strategic advantages so that the R.O.K. can't effectively counteract their threats. This study analyzed the asymmetrical strategies and presents plans for reacting.

North Korea's asymmetrical strategie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is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s well as missiles. The second is conventional weapons as long-ranged artillery, and special warfare units. The third type is backup power and cyber-warfare hacking units, which are included in other forces.

North Korea's policies and objectives towards the south haven't changed, but it doesn't consider symmetrical access to be possible. Rather than choosing this, strategic arms like WMD's are used for negotiation in peace time. All-out war or localized war is considered for asymmetry access in an emergency. Also,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use it indirectly for the maintenance of their system and for economic regeneration.

Therefore, there must be preparations to protect the nation and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are Synchronized OPS, Surprise infiltration, and Blitz tactics.

To adapt to these military strategies, the first effective countermeasure is to identify the surprise attack by implementing the Self-Early Warning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military provocation, but the self-early warning system is critical for the response of our main military power, and to have information about the precision strike ready.

The second countermeasure is to have the ability to launch a preemptive attack. The capital city, Seoul, is located within 50kms from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the Korean Peninsula. If North Korea attacked, Seoul would be invaded before most of our force's strength could be mobilized to defend it.

The third countermeasure is rapid reinforcement of the response forces

to the enemy's special forces. North Korea's special force unit is the largest in the world, with 200,000 soldiers, and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t will threaten us with great military strength, and mental armament will be deployed with the reservist. So when the surprise attack happens, an immediate response must be ready.

Finally, our military forces should develop more high-tech and mass-produced. These smart and mass-produced weapons are more speedy and accurate than North Korea's, so we can prevent the dispensable damages to our own. Then North Korea will be afraid, rather than envied.

Also, if necessary, offensive response should be demonstrated for the public, so people will have confidence in our security, and there will be no more provocations like the Cheonan issue or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against South Korea.

【Keyword】 North Korea, asymmetry, asymmet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military power, North Korea army